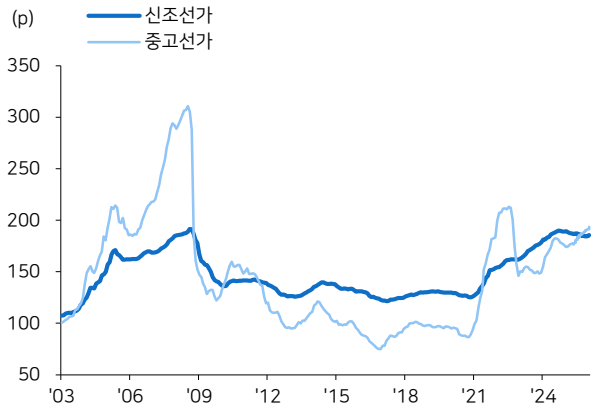
2026. 1. 19 (월)

조선/기계
Analyst 배기연
kiyeon.bae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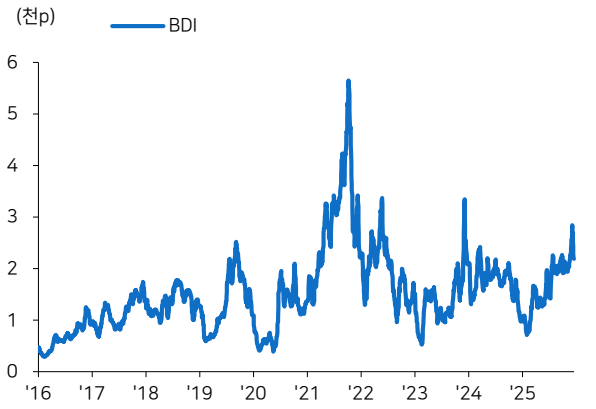
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

신조선가 184.7p (-0.6p WoW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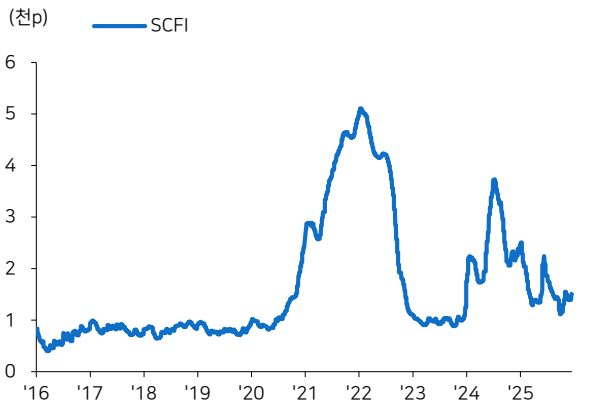


중국 내수 후판가격 482.0달러 (-p WoW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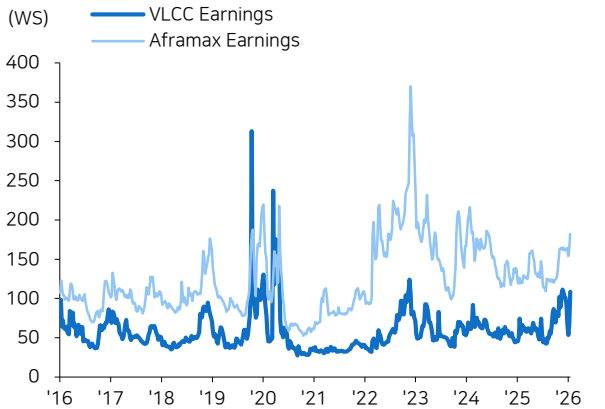
건화물운임(BDI) 1,532.0p (-76.0p DoD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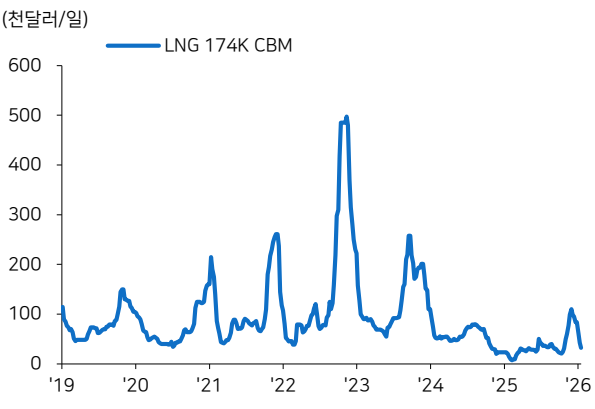
컨테이너운임(SCFI) 1,547.1p (-73.3p WoW)



VLCC Spot Rate 108.5WS (+41.0p WoW)



LNG Spot 운임 32.5천달러 (-10.0p WoW)



자료: Clarksons,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삼성중공업, 코랄 노르트 진수 FLNG 성과 '가시화' **블로터**

삼성중공업이 이탈리아 ENI가 발주한 초대형 FLNG 코랄 노르트의 진수식을 거제조선소에서 완료했으며, 해당 설비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공정이 진행 중이라고 전해짐.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 신규 FLNG 발주 물량 10기 중 6기를 수주했으며, 쉘 프렐류드를 포함해 4기를 인도했고 현재 코랄 노르트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FLNG 등 2기를 건조 중이라고 알려짐. 2026년 FLNG 4기 수주로 해양 플랜트 수주잔고 110억 달러 달성이 전망되며, 2027년 이후 반복 건조 효과와 체인지오더 정산금 반영으로 2028년 FLNG 영업이익률 20%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도됨. (https://buly.kr/3u4N6JZ)

선박 수리만하던 美 ECO..."건선 건조 첫 도전" **한국경제**

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의 Edison Chouest Offshore(ECO) 조선소가 HD현대중공업과의 협력을 계기로 선박 수리 중심에서 중대형 컨테이너선과 MR 탱커 신조 조선소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짐. ECO는 HD현대중공업의 설계 · 건조 기술 이전과 기자재 조달 지원을 바탕으로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6척 수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도 물량은 울산에서 공동 건조 후 단계적으로 탬파 조선소와 자체 건조로 확대될 계획으로 알려짐. 미국 조선 인프라 공백으로 한국산 엔진 · 블록 · 기자재 활용 비중이 커질 전망이며 이후 MR 탱커 현지 건조와 직접 운영까지 염두에 두고 설비 확장과 신규 조선소 건설 검토가 병행 중이라고 보도됨. (https://buly.kr/ESzpxO0)

HD Hyundai's Avikus claims largest AI-based autonomous navigation systems deal **TradeWinds**

HMM이 HD현대 그룹 계열사 Avikus와 계약을 체결해 AI 기반 자율항해 솔루션을 선박 40척에 적용하며, 이는 대형 상선을 대상으로 한 자율항해 솔루션 최대 규모 공급 계약으로 전해짐. HMM은 HiNAS Control 시스템을 우선 적용해 약 5% 수준의 연료 절감 효과를 목표로 상용 단계에 진입했으며, 결과에 따라 전 선대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짐. Avikus는 이번 계약을 통해 대형 상선 레트로핏 기준 누적 100척 이상 자율항해 솔루션 공급을 달성하며 자율항해 기술의 대규모 상용화 전환을 입증한 사례라고 보도됨. (https://buly.kr/FAerstZ)

Shell, Mitsubishi exploring Canada LNG stake sales **Upstream**

Shell과 Mitsubishi가 총 4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Canada LNG 프로젝트에서 보유 지분 일부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짐. Shell은 지분 40% 중 최대 30% 매각 가능성을 두고 잠재 인수자를 물색 중이며, 1단계와 2단계의 상이한 리스크를 고려해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됨. Mitsubishi는 지분 15%와 관련해 RBC Capital을 자문사로 선임했다고 알려짐. Canada LNG는 2025년 6월 생산을 시작했으나 기술 · 운영상 차질을 겪었고, 연간 1,400만 톤 규모에서 2단계로 증설이 계획되어 있다고 전해짐. (https://buly.kr/9tC8WoN)

Actual LNG bunker demand jumps in 2025 as industry waits for lift off **TradeWinds**

2025년 이중연료 선박의 LNG 벙커링은 약 38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6% 증가했으나, 연료 가격 부담으로 잠재 수요의 50% 미만만 실제 사용됐다고 전해짐. LNG 벙커 수요의 67%를 차지한 컨테이너선이 가장 일관되게 LNG를 사용했으며, FuelEU Maritime 규제가 유럽 항로에서 수요를 견인했고 2027~2029년 LNG 가격 하락 시 수요 급증 가능성이 보도됨. 2025년 최대 허브는 싱가포르와 로테르담이었고, 공급 측면에서는 Shell과 TotalEnergies가 상위를 유지한 가운데 인프라 병목이 향후 가격 변수로 전해짐. (https://buly.kr/9tC8VXo)

HJ 중공업, 미국 해군 함정정비협약 체결 대상자로 선정 **연합뉴스**

HJ중공업이 미국 해군으로부터 함정정비협약(MSRA) 체결 대상자로 선정돼 미 해군 전투함 · 호위함을 포함한 주요 함정의 MRO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확보했다고 보도됨. 협약 유효기간은 2026년 1월 23일부터 2031년 1월 22일까지이며, 향후 5년간 연간 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 해군 함정 MRO 시장 진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알려짐. HJ중공업은 앞서 USNS Amelia Earhart 중간 정비 계약을 체결했고, 국내 조선사 중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이어 세 번째로 미 해군 MRO 사업을 수주했다고 전해짐. (https://buly.kr/58TfyBQ)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
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
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